

미세먼지가 국민생활에 미치는 피해 및 해결방안 모색

미세먼지대책추구카페 정책추진위원장
염제인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적이고도 필수적인 요소는 무엇일까? 이 질문에 대해 의식주라는 세 글자가 가장 먼저 떠오르기도 하지만 의식주를 해결하며 살아가기 이전에 인간은 호흡을 멈추면 더 이상 생명연장을 할 수 없기에, 숨쉬기와 직결된 맑은 공기야말로 인간이 건강한 조건으로 생명을 유지해 나감에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요즘 우리나라가 직면한 현실을 들여다보자. 눈부신 푸르름을 자랑하던 맑은 하늘은 온데 간 데 없고, 연일 미세먼지가 가득한 뿌연 하늘의 일상화는 국민의 생활에 있어서 커다란 고통과 불편만을 안겨주고 있을 뿐이다.

이에 본 정책토론회에 토론자로서 참여하게 된 본인은 미세먼지가 야기한 참담한 국민적 피해상을 생생히 보고함과 동시에 보다 현실적이고 적극적으로 미세먼지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미세먼지는 WHO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써 호흡기관을 통해 인체에 침투 시, 폐 손상을 비롯해 뇌졸중, 치매, 암, 심장마비를 유발 심지어는 태아의 건강에까지 악영향을 끼친다는 보고가 있다. 따라서 미세먼지를 지속적으로 흡입할 시 각종 질병을 막아 내는 힘의 원천인 면역 기능이 저하되어 여러 가지 신체적 질환으로 고통 받는 결과는 당연지사일 것이다. 따라서 미세먼지로 인해 국민들이 겪고 있는 피해상황 중 가장 극심한 호소는 바로 건강과 관련된 고통이라고 할 수 있겠다. 많은 경우 비염, 폐렴, 급성 아토피 피부염과 피부 발진, 천식, 마른기침, 폐통증, 편도선염, 후두염, 모세기관지염, 결막염, 안구 건조증 등의 질환을 호소하고 있으며, 기존에 가지고 있던 기저 질환은 더욱 악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면역력이 약한 아이들의 경우에는 예년과 달리 잦은 호흡기 관련 질환으로 일년 내내 고통과 불편함을 안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이러한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상의 피해는 비단 신체적 고통만은 아닐 것이다. 미세먼지로 인해 겪고 있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호소 역시 우리는 주목해야한다.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 겪는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불면증, 분노심, 공포감은 우울증 및 공황장애까지도 유발하고 있으며, 미세먼지가 지속적으로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면서 아이들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끊임없이 야기, 미세먼지는 급기야 건강한 정신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함에 방해가 되는 치명적인 위해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건강과 관련된 피해 다음으로 미세먼지가 야기한 국민적 피해는 바로 일상 그 자체라고 할 수 있겠다. 앞서 언급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방해가 되는 정신적 고통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미세먼지가 점령한 평범한 도시민의 일상은 미세먼지 수치에 얽매어서 야외활동에 제약을 받고, 일상의 일로 외출이 필요할 때는 여름철 고온에도 마스크를 착용해야하는 불편함을 겪는 등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고통 속에 놓여있다.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적 경각심의 부족으로 마스크를 쓴 행위 자체에도 이해보다는 불편한 눈길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 까지 감안한다면 일상생활 안에서 겪는 어려움과 그로 인한 스트레스는 상상 이상의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또한 고농도의 미세먼지는 창문을 열기만하면 되는 간단한 환기마저도 어려운 일로 만드는데, 미세먼지 수치가 높을 때에는 실내공기오염과 외부오염물질인 미세먼지 유입사이에서 혼란을 느끼며 환기를 할 적절한 때를 확보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로 인해 환기가 필수인 가사활동, 즉 청소와 빨래, 요리조차도 미세먼지로 인해 힘든 일이 되어가고 있으며, 미세먼지 수치에 따라 가사 일을 계획하고 실행해야하는 씁쓸한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이와 더불어 미세먼지로 인한 극심한 피해는 교육기관과의 갈등 및 교육 현장 자체에 내재한다고 할 수 있겠다. 미세먼지가 심한 날임에도 불구하고 체육 등 야외활동을 감행, 환기라는 명목 하에 종일 창문을 열고 생활하며, 창문으로 들어온 미세먼지를 마시고, 미세먼지로 범벅된 급식을 먹고, 잔기침을 하며 집으로 돌아온 자녀를 바라보는 것은 부모에게 자녀를 계속해서 교육기관에 보내야하는지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을 안겨줄 뿐이다.

그리고 이 밖에도 미세먼지로 인한 가장 실질적인 피해로는 경제적 부담을 들 수 있다. 외출시 일회용 마스크 사용, 정부가 제공하는 미세먼지 측정값에 대한 불신으로 가정용 미세먼지 측정기 구입, 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창문을 마음 놓고 열지 못하기에, 잦은 에어컨 사용으로 인한 높은 전기요금은 가정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을 가하고 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일회용품 사용과 에어컨 사용은 또 다시 환경을 파괴하고 대기를 오염시키는 원인이 되므로 이와 같은 일회용품과 에어컨사용은 또 다른 피해를 자아낸다고 할 수 있겠다.

이와 더불어 기타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로 꼽을 수 있는 것은 미세먼지가 점령한 이땅에서 결혼과 출산에 대한 계획을 포기하는 사람이 점점 늘고 있다는 점이다. 내 한 몸도 건강하게 지킬 수 없는 오염된 환경에서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갖는 행위는 개개인에게 심적인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 또한 이미 가정을 이루고 자녀가 있는 기혼자의 경우에는 심각하게 이민 및 자녀의 유학을 고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듯 미세먼지는 우리네 평범한 도시민의 일상에 침투하여 건강한 삶의 영위를 방해하고, 일상자세를 혼란스럽게 하는 등 많은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 발암물질인 미세먼지로 인해 국민 건강이 위협받고 있으며, 이에 위협을 느낀 국민들은 출산마저도 포기하고 유학과 이민을 고려중임을 감안한다면, 정부는 실로 이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6.3 미세먼지 특별대책 세부이행사항의 완료시점을 2020년에서 더욱 앞당겨, 조속히 미세먼지에 관한 특별대책을 실행하고 완료해야만 할 것이다.

우선적으로 미세먼지와 관련한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적용하는 미세먼지 기준치를 WHO수준으로 강화시키는 것이 급선무일 것이다. 기준치강화를 통해 미세먼지에 대한 심각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미세먼지 수치가 높은 날에 적용되어야 할 메뉴얼 또한 법제화를 통해 강제성을 가지게 된다면, 미세먼지 자체를 없앨 수는 없더라도 최소한 미세먼지에 국민의 건강을 내어주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전국적으로 가장 큰 오염원으로 지적되고 있는 화력발전소의 증설은 결코 이뤄져서는 안 될 것이다. 그리고 미세먼지의 발생의 상당한 원인이 중국 측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주변국과의 환경협력’문서에만 의존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문서 자체는 어떠한 강제적인 효력도 가질 수 없기에 좀 더 실질적이며 구체적인 협력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환경협력에 대한 강제성을 갖는 규약이 마련될 수 있도록 외교적인 노력을 다해줄 것을 요청하는 바이다.

그리고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가장 실질적인 대책으로 제시하고 싶은 바는 바로 스모그프리타워의 설치이다. 스모그프리타워는 네덜란드 한 디자이너의 아이디어에서 착안, 정전기를 발생시켜 스모그분자를 끌어들이는 방식을 취하는, 도시를 정화하는 거대 공기청정기라고 할 수 있겠다. 모듈식으로 만들어진 이 시스템은 건설이 쉬울 뿐 아니라 이동에도 용이하며, 에너지 소비량 역시 극히 미미한 수준이라고 한다. 현재 오는 9월 중국 베이징에서 시범운영을 할 계획이며, 본인이 속한 단체에서 제작사에 의뢰한 결과 설치비는 한화로 약 7억원 정도라고 하니 정부에서는 이러한 제안에도 귀 기울여 우리나라에도 스모그프리타워가 설치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주기를 청하는 바이다.

지금까지 제시한 해결책을 부디 정부는 적극 수용하여 미세먼지와 관련한 피해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국민이 아프지 않는 나라, 국민이 저버리지 않는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기를 간곡히 부탁하는 바이다. 이러한 노력으로 미세먼지가 없는 나라, 편안히 숨 쉴 수 있는 나라, 공기가 맑고 하늘이 아름다운 그러한 우리나라를 되찾을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해본다.